



자원순환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 대전광역시

국내 재활용 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EPR 제도의 성공여부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재활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집, 선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실제로 EPR 제도 정착의 안정화에는 많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대전광역시는 539.59km²의 면적에 1,450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21세기 선도 도시로서, 첨단과학기술도시이자 물류유통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및 대덕구의 5개 구로 이루어진 대전시는 첨단과학과 지식정보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추구하는 경제과학도시이자 환경친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대전시의 환경사랑은 특히,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노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폐기물 감량 현황을 살펴보면 약 17%의 감량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재활용율은 2000년도 35.9%에 비하여 2004년도에는 45.2%로 약 10%의 상승을 가져왔다.

대전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금년 4월부터 100톤 규모의 음식물 제2자원화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적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민간대행처리업체를 지정, 전화신고 등을 통해 민간업체가 직접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처리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학교쓰레기 감량화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학교→가정→사회」로의 분리배출 생활화 확산을 도모하고 시청 실?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등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홍보, 계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재활용품 민간대행업체와 주민간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분리배출 홍보는 물론 재활용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시청사내 알뜰매장 개설, 자체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배포,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대주민 홍보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분리배출된 폐기물 재활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중량제봉투내의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 및 재활용을 시도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에서는 매립장내 반입쓰레기중 중량제봉투내에 약 28%의 재활용품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 우리 협회 재활용회원사이면서 대덕구 재활용품 수집, 선별을 담당하고 있는 동양산업과 선별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6개월간의 선별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자원 절약의 차원에서 이제는 쓰여진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이 절실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긍정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는 대전시의 노력,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들이 모이면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고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수 있을 것이다.